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자 부처님오신날 사흘 연휴를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들이 광주·전남을 오가며 열린 유세전을 펼쳤다. 사진 왼쪽부터 민형배(더불어민주당)·이정현(국민의힘)·이종욱(진보당)·강은미(정의당)·김광만(무소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 <각 후보 측 제공>

“바닥 민심 잡아라” 황금연휴 총력 유세전

통합특별시장 후보들 유권자 접촉면 확대
광산을 보선 무관심 속 표심 다지기 주력

6·3 지방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 주말이자 부처님오신날 연휴를 맞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이 지역 곳곳을 누비며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늘리는 등 총력 유세전을 펼쳤다.

25일 각 후보 선거대책위원회에 따르면 후보들은 3일 연휴 내내 광주 도심, 전남 동·서부권을 넘나들며 종교행사, 지역축제, 전통시장, 상가 밀집지에서 유권자들을 만났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전남지역 선거 지원에 나선 정청래 대표와 동행하며 유세 일정을 소화했다.

민 후보는 지난 23일 경남 김해 봉하마을에서 열린 노무현 전 대통령 17주기 추도식에 참석하러 뒤 구례 오일장과 순천 신대사거리 유세를 이어가며 동부권 표심 공략에 집중했다.

24일에는 장성 백양사와 순천 송광사 봉축법요식, 담양 유세 등을, 25일에는 여수 이순신광

장·수산시장, 순천 웃장, 곡성 세계장미축제, 광주 신창IC·수완지구 유세까지 이어가며 전남 동부와 광주권을 잇는 강행군을 소화했다.

민형배 후보는 “압도적으로 이겨야 압도적으로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다”며 “전남광주통합특별시를 흔들림 없이 출범시키고 시민이 주인 되는 특별시, 삶이 실제로 나아지는 전남광주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이정현 후보는 광주·전남 전역을 횡단하는 현장 유세로 민주당 일당 독점 구도 견제론을 피며 지지를 호소했다.

이 후보는 25일 중심시 입구, 곡성 세계장미축제, 장성 황룡강 음악 힐링 축제, 광주 기아챔피언스필드, 첨단 먹자골목 등을 찾았다.

24일에는 순천 송광사와 광주 말바우시장, 조선대 장미축제, 충장로, 첨단 상권 등을, 25일에는 순천·광양·여수·고흥·장흥·강진·보성과 광주 식당가 등을 순회하며 산업 현장, 골목 경제를 살피는 민생 유세를 이어갔다.

이정현 후보는 “지금 광주·전남에는 시민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구조, 시민 목소리를 더 듣게 만드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누가 지역을 위

해 더 치열하게 뛰는지, 누가 중앙정부와 제대로 싸워 예산과 사업을 가져올 수 있는지를 냉정하게 평가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진보당 이종욱 후보는 무각사 봉축법요식, 중심사 차고지, 목포 동부시장 등에서 노동자·상인·시민 접촉을 이어갔다.

정의당 강은미 후보는 새벽 청소노동자 출근 인사, 송정 오일장, 망월동 민족민주열사 묘역, 들불 열사 합동 추모식, 수완지구 유세 등 광주는 물론 전남 나주 영산포흥어·한우 축제장을 찾아 유권자들과의 접촉면을 넓혔다.

무소속 김광만 후보는 연휴 첫날에는 장흥·강진·해남·완도 등 전남 각지를 돌며 거리 유세를 이어갔다. 연휴 마지막 날에는 영암 오일장, 곡성 기차마을, 목포역 광장, 목포 평화광장 등 전남 서남권 중심 일정을 소화했다.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들도 연휴 기간 선거구 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점을 집중 공략하며 초반 표심 선점에 공을 들였다. 특히 후보 개인별 인지도가 낮은 만큼 얼굴 알리기에 주력했다.

민주당 임명영 후보는 수완지구 상인회 간담

회, 마한 유적지 방문, 종교행사, AI 청년 기업인 만남 등을 통해 지역경제·역사 문화·미래산업 업제를 부각했다.

국민의힘 안태우 후보는 첨단1동 상가, 시리단길, 쌍암공원, 대형마트와 상가 밀집지를 돌며 청년 일자리와 지역경제 활성화, 야당 견제론을 내세웠다.

조국혁신당 배수진 후보는 화암사 빛고을 포교원과 보은사, 송정 오일장, 신창IC, 첨단지구, 산월IC, 아파트단지과 골목상권에서 청년으로 구성된 ‘333 유세단’을 앞세운 생활권 밀착 행보를 보였다.

진보당 전주연 후보는 거리 인사, 주민센터 방문, 플로깅, 봉축법요식 참석 등 현장밀착형 선거운동을 이어갔다.

기본소득당 신지혜 후보는 광주시민의 날 행사장, 신창·첨단·수완 주거단지, 기아챔피언스필드, 신창IC 사거리와 수완 국민은행사거리 등을 돌며 표심을 공략했다.

무소속 구분기 후보는 첨단·수완지구 일대 집중 유세와 촛불 시민 결집 행보에 주력했다.

/양시원기자

전남·광주 地選 선거인 274만7천725명 확정

광주 118만9천519명·전남 155만8천206명
투표소 1천144곳...투표안내문·공보 발송

6·3 지방선거 전남·광주 선거인 수가 총 274만 7천725명으로 확정됐다.

2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제9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선거인명부 확정 상황에 따르면 광주는 118만9천519명, 전남은 155만8천206명이 선거권자로 각각 이름을 올렸다.

광주의 투표구 수는 359곳으로 작성기준일 현재 인구 138만7천526명 가운데 118만9천519명이

확정 선거인으로 집계됐다. 광주 확정 선거인에는 주민등록 재외국민 870명과 외국인 선거권자 1천105명이 포함됐다.

전남의 투표구는 총 785곳이다. 전남 인구 177만6천548명 중 확정 선거인 수는 155만8천206명이다. 주민등록 재외국민 1천300명과 외국인 선

거권자 1천711명이 포함됐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광주 광산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선거인 수는 18만5천133명이다. 광산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투표구 수는 47곳이며 선거인에는 주민등록 재외국민 98명이 포함됐다.

광주·전남선관위는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를 지난 24일까지 발송했다. 투표안내문과 선거공보는 25일부터 각 세대에 배달될 예정이다.

/김재정기자

민형배 “미래 실무형 인재 발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25일 “통합특별시의 미래 성장 전략을 함께 설계할 인재 발굴에 나선다”고 밝혔다.

민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인공지능(AI), 반도체, 모빌리티, 에너지,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통합돌봄, 도시혁신, 관광, 농축수산업, 농생명, 해양, 청년창업 등 분야에서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갖춘 인재를 추천받기로 했다.

민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는 인재위원회를 구성하고 기업·연구기관·대학·스타트업·시민사회 등 지역 안팎의 인재를 폭넓게 발굴할 계획이다.

선대위는 인재영입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추천 인재의 전문성, 조직운영 능력, 행정 환경 적응력, 리스크 관리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평가한다.

민 후보 선대위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성패는 결국 사람에 달려 있다”며 “산업을 알고 현장을 이해하며 시민의 삶을 바꿀 수 있는 인재를 찾겠다”고 밝혔다. /변은진기자

2026. 6. 3. 실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선거정보 카드뉴스

한 사람이 중복투표, 가능하다?

통합선거인명부, 중복투표 차단!

#사전투표 #부정선거의역 #팩트체크

선거인명부란?

선거권자가 해당 선거에서 투표할 권리를 갖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할구·시·군·군의 장이 관할구역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작성**

* 선거인명부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작성하지 않음.

팩트체크 1 “사전투표 참여 이력, 실시간 반영”

- 전국 구·시·군·군의 장이 작성한 선거인명부를 전산시스템에 작성한 통합선거인명부 이용

- 전국 어디서든 투표하는 실시간으로 통합선거인명부에 연결되어 사전투표 참여 이력 즉시 반영

팩트체크 2 “선거일 투표소에서 중복 투표 불가능”

- 사전투표 종료 후, 사전투표 기록이 있는 선거인명부 실물을 출력하여 선거일에 사용

- 본인확인 과정에서 이미 사전투표 완료한 선거인은 투표용지 수령 불가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

생애 마지막 케네이션이 될지도 모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 방에서 맞는 어버이날은 어르신에겐 그저 평소보다 좀 더 시린 날일 뿐입니다.

월 2만 원으로 '어버이날 선물' 전하기

QR 인식

ARS 무기명 후원 **060-708-1004** (1만원)

후원문의 **1811-1004**